

도교육청, 학교식생활관 시설환경 개선

도내 지하·반지하 식생활관 학교 대상... 조리종사원에 안전·건강한 환경 제공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식생활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내 반지하·지하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확충 및 조리실 환기 시설 개선에 나섰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식생활관 시설환경 개선은 학교급식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와 학교부지, 시설배치 등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식생활관 반(지하)학교는 전주 중앙초, 중산초 등 12개교다.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2025년까지 반(지하)식생활관 개선 완료율 요청했으나, 전북교육청은 최우선적으로 반(지하)학교 12개교에 대한 지원을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 본예산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등을 포함해 182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조리종사자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조리를 완료해야 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가 높다. 또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습기와 기름 등으로 넘어짐과 화재 등의 재해 위험이 높다.

“교육정책 도민에게 직접 들어야”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 대의민주주의 한계 분석... 청원제 도입 제안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분석하고, 교육정책 청원제와 공론화위원회, 중요정책 직접 투표제, 전북교육회의 추진 등 전북교육정책에서 이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근 전북사태보고 이전 좌절 사례가 안타깝다며, 주요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직접 투표를 통해 의사를 묻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며, 이를 지역사회 주요 교육 현안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직접 투표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출마예정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전북교육회의를 운영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출마예정자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봉착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정책 청원제와 공론화위원회, 중요정책 직접 투표제, 전북교육회의 추진 등 전북교육정책에서 이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만명 이상의 국민청원이 있을 경우, 청와대가 직접 답하는 제도를 참고해 전북도민 2천명의 직접 청원이 있으면 전북교육청이 답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학교의 이점, 남녀공학 결정 등 해당 학교의 중요정책에 대해 구성원의 직접 투표를 통해 의사를 묻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며, 이를 지역사회 주요 교육 현안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직접 투표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출마예정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전북교육회의를 운영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익산 용산초,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선정

도시형 어울림학교 운영·예술교육 진행·창의융합 인재 양성 등 활발한 활동 펼쳐

익산시 황등면에 위치한 용산초등학교(교장 이연용)가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농어촌의 장점을 살려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민족 의식이 높은 농어촌 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용산초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뽑혔다.

용산초는 2021년부터 도시형 어울림학교를 운영하며 자연과 호흡하는 자연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교숲 생태교육과 지역과 함께하는 사계절 자연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사물놀이, 국악, 플루트, 바이올린 등 예술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2021년 인공지능(AI) 선도 학교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힘쓰는 등 배움이 즐겁고 꿈나무를 키우는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찾아오고 싶은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대불어 용산초는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돼 2022년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개축 완공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

다. 생태환경과 에듀테크(Edu-Tech)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무한한 꿈을 펼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로 나아가고자 지역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연용 교장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자연 속에서 5G 어울림+ 교육으로 학교 특색을 살려 지역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학교를 실현해 그 노력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용산초의 우수사례는 ‘참 좋은 작은 학교 사례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질 것이며, 또한 교육활동 모습은 교육부 유튜브를 통해서도 홍보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법령, 빅데이터 활용·취업 역량’ 특강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 인재 취업역량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하나로 ‘보건의료 법령, 빅데이터 활용 및 취업역량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부는 심평원 본원의 박소민 변호사와 직원 3명이 참여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심사평가원 관련 법령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 ▲채용 관련 설명 및 기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2부는 심평원 전주 지원 지원포 지원장 2명의 직원이 참여해 빅데이터 활용 교육이 이뤄졌다.

특강에 참여한 류정민 학생은 “공공기관의 특강을 통해 건강보험법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이해하며,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최초로 심평원 현장실습을 지원한 김현표 지원장은 “심평원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를 도출하는 능력은 4차 산업 시대의 필수 직무 역량이다”며,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지나 학과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 속에 이번 특강이 전공 분야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면서,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의료기관의 산학연계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문화 학생 도교육청 전담팀구성 할 것”

황호진 전 전북교육감, 다문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필요

황호진 전 전북교육감은 제16차 교육현장 정책감담회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전북교육청 전담팀 구성을 약속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12년 1.2%에서 2021년 4.2%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교육에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감담회에서 전주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지훈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중 중도입국 가족 학생들은 한국어 학습과 문화적 어려움 외에도 새 아바를 중심으로 한 가족 내 갈등과 소통의 어려움 등이 있다”며 “중도입국 가족 학생들을 위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북교육청 다문화 학생 대상 지원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문화

전북교총, 교원 안심번호 통한 교원 보호 나서

티로그텔레콤과 협약 체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가 교원들의 교원 보호에 나섰다.

25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주)티로그텔레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들의 휴대폰 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교사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교원의 휴대폰 번호 노출에 따른 교원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거론되면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24시간 무분별하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수업 관련 문의가 밀집되면서 교사들의 업무 피로도도 더욱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북교총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일선 현장 학교에 보급해 무분



전북교총은 (주)티로그텔레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들의 휴대폰 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교사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한 외부 전화통화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교원은 050 교원 안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어 개인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교원 안심번호 전용 앱이 제공되며, 교사의 상행(수업중 회의중 점심시간, 휴가 병가 등에 따라 통화 수신 시간 설정을 교사 개인이 앱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기종 회장은 “교원의 휴대폰 사적으로 노출되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구별할 수 있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교원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 LINC+사업

성과확산·산학연관 포럼

전주비전대학교 LINC+ 육성사업단은 24일 행복기숙사 드림관에서 LINC+사업 성과확산 및 산학연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INC+사업단과 참여 산업체, 가족회사, 유관기관과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LINC+사업단 소개 및 2021년 LINC+사업 우수성과 발표, 우수 산업체(13개)에 대한 감사패 증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장영선 사업본부장 초청특강, 캠퍼스부터 현장, 교육과정 수기 우수작품 전시 및 영상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문용규 총장직무대행은 “LINC+사업단이 추진해 온 산학연계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양방향 산학협력과 수요자(기업체 및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프라 구축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주비전대는 내년에 진행될 LINC 3.0 사업에 새롭게 진입하기 위해 심화된 산학연협력력 기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가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창업보육 입주기업 해외시장 개척 ‘호응’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온라인 해외 바이어 화상 상담회 통해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권대규)가 온라인 해외 바이어 화상 상담회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의 성과를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호원대 창업보육센터, 희망전북 POST B와 함께 2021 보육역량강화사업 NICE Supermarke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주)도농부, (주)메디엔리서치, 셀젠, (주)위스, (주)제이케이생명과 등 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 바이어와 화상 미팅을 통해 제품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회를 통해 모두 15회의 상담과 3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이뤄졌다. 특히 전북대 주식회사 도시농부의

도시형 스마트팜 시스템과 희망전북 POST-BI 제이케이명파화학(주)의 유기비료와 단미시료는 해외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각각 9만 달러, 4만9000 달러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와 함께 창업보육센터는 후속 지원으로 베트남 현지 전용 온라인 홍보관인 KORETOMET.com에 참여기업의 제품을 입점하여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에게 3개월간 제품 홍보 기간을 갖기로 해 추후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권대규 센터장은 “글로벌한 경제 환경 속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전북 지역 창업기업의 수출 관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비전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서 S·A 등급 획득

전주비전대학교(문용규 총장직무대행)는 최근 한국전문대학교협회의에서 실시한 2020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 결과 S·A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사학위 수준의 직업교육 심화과정으로, 전문대학교협회는 2013년부터 연차평가 제도를 도입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서’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부터는 3년 주기 운영진단 체계를 도입했다.

2020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은 전국 81개 전문대학 323개 모집단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공화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진단은 전국 81개 전문대학 323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학과차원의 운영조직·지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상담·지도 ▲산학협력·교육품질관리 ▲교육성과(재학생 충원율·취업률) ▲대학차원의 운영 계획 대비 실적 ▲운영조직·지원 ▲운영위원회 실적 등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진단에서 S등급을 받은 이동북지하교는 장애 영유아 보육 중심 교육과정 재설계 및 운영사항을

우수사항으로, A등급을 받은 태권도체육학과는 전공심화과정 교육을 통한 태권도시범단 운영 및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선발을, 미용건강과는 ‘창의융합형 역량중심 스마트교수학습법’을 활용한 매체기반 수업 모델 개발을 각각 우수사항으로 인정받았다.

김나립 학사지원처장은 “2020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 결과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과 ‘A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준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가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